

##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김경필·이현근·곽혜선·명수환·구혜민·박서윤

### 요약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이행 10년차가 되었으며,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97.9% 수준임.

-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

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짐.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이고, 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2012년 42.9%에서 2021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며,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이 70.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01

## 서론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 전에는 7건의 FTA, 한·미 FTA 발효 후에는 10건의 FTA를 발효함.

우리나라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민감 분야의 협상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함.

- 정부는 2003년에 중장기적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거대·선진국 주변에 있는 국가 중 우선 협상 개시가 가능한 국가와 FTA를 추진한다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함.
- 한·칠레 FTA 발효 후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빠른 성장이 예상되던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의 FTA를 체결함.
- 한·미 FTA가 최초 타결(2007년 4월)된 이후에는 EU와의 FTA 협상이 추진되었고, 한·미 FTA 타결 전부터 협상 중이던 캐나다, 페루, 터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됨.

한·미 FTA는 2006년 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의 공식 발표 이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

한·미 FTA 공식협상은 여덟 차례 진행되었으며,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발효됨.

- 한·미 FTA 공식협상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여덟 차례 이루어졌으며, 2007년 4월에 타결됨.
-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양국은 2007년 6월에 두 차례의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미국의 요구로 추가 협상이 개최됨.
- 한·미 FTA는 2011년 11월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오래갈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투·용자를 지원함.

- 미국과의 협상이 최초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2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1조 원의 추가 투·용자 계획안을 마련함.
- 2012년에는 한·미 FTA 비준에 앞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투·용자 규모는 총 23조 1천억 원임.

**한·미 FTA는 2021년에 FTA 이행 10년차를 맞았으며, 관세 철폐율은 97.9%임.**

우리나라는 HS 10단위 기준 1,531개 품목에서 578개 관세를 즉시 철폐, 1,342개는 10년 내 철폐, 1,490개는 15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전체 품목 수의 97.9%를 개방하기로 함(표 1) 참고).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코드)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오렌지, 식용감자, 식용대두와 천연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는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를 제공함.
- 사과와 배는 각각 후지와 동양배 품종 관세를 기타 품종(10년)보다 더 긴 20년간 철폐하기로 했으며, 포도, 오렌지와 칩용 감자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함.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와 같은 민감품목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와 같이 고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에는 농산물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 Guard: ASG)를 적용함(표 2) 참고).

**〈표 1〉 한·미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구분	HS 코드 수	비율	주요 품목
즉시	578(9)	37.8%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스,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2년	6	0.4%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3년	33	2.2%	검, 기타 효소류 등
2014. 1. 1.	20	1.3%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2016. 1. 1.	1	0.1%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살, 갈비살 등, 추가협상 결과)
5년	317(2)	20.7%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냉장), 크랜베리주스, 자두주스, 위스키, 스파게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6년	2	0.1%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7년	41	2.7%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등
9년	1	0.1%	신선딸기
10년	332	21.7%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로열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느타리, 팽이, 영지버섯 등
12년	34	2.2%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5년	98(2)	6.5%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6년	2	0.1%	설탕
18년	3	0.2%	홍삼(본삼, 미삼, 잡삼)
20년	0(2)	0.1%	사과(후지), 배(동양배)
10년 + TRQ	11(1)	0.8%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더치즈
12년 + TRQ	6	0.4%	보조사료, 덱스트린
15년 + TRQ	10	0.7%	치즈, 보리,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전분, 사료용 식물
18년 + TRQ	4	0.3%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 미삼, 잡삼)
7년, 계절관세+TRQ	1	0.1%	오렌지
15년, 계절관세	0(1)	0.1%	칩용 감자
17년, 계절관세	1	0.1%	포도
현행 + TRQ	14	0.9%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전지분유 및 연유, 천연꿀
양허제외	16	1.0%	쌀 및 쌀 관련 제품
합계	1,531(17)	100%	

주: HS 코드 수에서 ( )안 품목은 HS 코드가 분리된 품목 수입.  
 자료: 성석호(2011); 관계부처합동(2012).

〈표 2〉 한·미 FTA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 품목

단위: 개

	구분	HS 코드 수	품목 수	품목
유형 1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53	13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사과, 녹차, 생강,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설탕
유형 2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6	2	기타 뿌리 및 괴경류,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유형 3	중간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기준물량 이하: 중간ASG 주기준물량 초과: 주ASG	19	7	콩류(녹두, 팥), 고구마, 팝콘, 옥수수, 메밀, 곡류·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
유형 4	기준물량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5	4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기타 전분
유형 5	기준물량 이하: TRQ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13	4	맥아 및 맥주맥, 보리, 옥수수 전분, 덱스트린
	소계	96	30	

주: HS 코드 수는 2012년 기준임.

자료: 관세청(2012).

## 02

## 한·미 FTA 이행과 농식품 교역 변화

## 2.1. 농식품 전체 교역 동향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추세임.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수입액과 對미국 수출액이 FTA 발효 전보다 증가한 가운데, 2021년에는 각 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표 3) 참고).

- FTA 이행 10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 FTA 이행 10년차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對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속해서 커져서, FTA 이행 10년차(2021년)에는 90.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표 3)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55.4억 달러 적자)보다 46.1% 커짐.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높지만, 수출액과 수입액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이 FTA 발효 전보다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액 비율은 소폭 상승했고, 對미국 수출액 비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표 3) 참고).

-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액이 FTA 발효 전보다 많이 증가했지만, 수입액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25.2%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25.5%로 소폭 상승함.
-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0.0%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13.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

〈표 3〉 한·미 FTA 발효 전·후 농축산물 교역액 및 무역수지 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증감률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액	59.4 (25.2)	65.4 (22.2)	68.9 (23.0)	103.2 (24.6)	68.6 (22.5)	90.7 (25.5)	73.8	52.7	32.2
수출액	4.0 (10.0)	4.8 (8.4)	7.2 (11.1)	12.6 (14.8)	5.9 (9.7)	9.8 (13.1)	214.7	143.6	65.9
무역수지	-55.4	-60.6	-61.7	-90.5	-62.7	-80.9	-63.6	-46.1	-29.0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괄호 안은 전체 수입액(수출액)에서 미국산(對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임.

3)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으로, 반올림에 따라 합계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산물과 축산물은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과 수출액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고, 임산물의 경우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증가함.**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농산물(55.2억 달러)과 축산물(28.2억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1.6%와 195.5% 증가했으며, 수입액이 많이 증가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오렌지, 포도, 감자, 체리와 레몬임(〈표 4〉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17.4억 달러), 돼지고기(5.3억 달러)와 치즈(2.5억 달러)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427.1%, 92.8%와 261.7%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오렌지(2.2억 달러)와 포도(6,512만 달러)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69.4%와 93.4%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함.
- FTA 이행 6~10년차 감자(1.3억 달러), 체리(1.2억 달러)와 레몬(3,294만 달러)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산 수입액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하락함.

〈표 4〉 미국산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증감률			미국산 비율		
		1년차 ('12)	5년차 ('16)	10년차(B) ('21)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발효 전 평균	6~10년차 평균	
농산물 전체	4,196	4,340	4,349	6,167	4,358	5,523	47.0	31.6	26.7	29.6	26.6	
농산물	옥수수	1,717	931	832	842	799	866	-51.0	-49.5	8.4	77.9	38.1
	밀	453	764	291	559	456	395	23.4	-12.8	-13.3	38.4	36.8
	대두	269	310	290	319	328	335	18.7	24.5	2.2	43.2	54.2
	오렌지	127	241	226	194	214	215	52.5	69.4	0.7	71.5	83.7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증감률			미국산 비율	
		1년차('12)	5년차('16)	10년차(B)('21)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발효 전 평균	6~10년차 평균
감자	56	97	124	140	119	133	151.2	138.9	12.2	76.9	67.8
체리	35	84	112	118	107	123	237.7	252.7	14.7	90.4	77.8
커피	22	39	61	112	42	93	417.7	330.6	120.7	6.6	13.0
포도주	14	17	22	91	21	47	568.8	247.9	129.0	10.0	14.1
포도	34	45	40	61	44	65	82.4	93.4	48.5	22.9	30.8
초콜릿	37	47	38	41	44	39	11.0	7.0	-11.4	30.4	17.7
기타 베이커리 제품 <sup>4)</sup>	27	31	24	35	29	28	28.4	2.3	-5.3	39.3	18.6
레몬	8	16	32	32	27	33	292.6	305.3	23.0	75.3	65.8
<b>임산물 전체</b>	784	793	717	741	832	718	-5.5	-8.4	-13.7	13.7	10.3
아몬드	55	129	174	182	181	172	229.9	212.5	-4.7	99.5	99.6
호두	54	98	85	96	108	94	79.4	75.2	-13.4	97.8	97.1
기타 견과류	2	3	7	16	5	13	789.2	579.1	152.2	99.2	92.8
피스타치오	2	7	5	12	8	9	474.2	322.0	22.0	76.8	96.1
<b>축산물 전체</b>	956	1,411	1,824	3,408	1,669	2,825	256.5	195.5	69.3	24.8	36.4
쇠고기	330	522	1,035	2,172	740	1,741	557.7	427.1	135.1	27.1	56.2
돼지고기	274	391	393	519	391	528	89.5	92.8	34.9	27.9	31.0
치즈	68	141	169	290	210	247	325.0	261.7	17.6	25.9	42.0
소시지	18	23	33	41	28	37	124.4	99.3	33.8	85.7	92.4
유장 <sup>5)</sup>	18	23	10	17	18	13	-5.9	-24.6	-25.2	14.3	8.7
버터	1	5	3	13	5	9	961.8	621.2	62.5	3.7	9.7
탈지분유	1	7	12	12	17	15	866.7	-	-13.7	3.0	29.2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출평균값이며, 미국산 비율은 각 연도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개년 평균값임.

2) 부류별 품목은 2021년 수입액이 농산물은 3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 축산물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 임산물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에서 석재 또는 목재 관련 제품을 제외한 식용 임산물만을 제시함.

3) 증감률에서 증감률이 없거나 1,000% 이상인 품목은 '-'로 표시함.

4) 기타 베이커리제품은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를 포함함.

5) 유장은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은 우유의 천연구성성분으로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법령정보포털.

FTA 이행 6~10년차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모든 부류에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증가했으며, 수출액이 많이 증가한 품목은 김치, 표고버섯, 닭고기와 감(임산물)임(표 5)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對미국 농산물(8.3억 달러)과 축산물(5,473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129.7%와 151.2% 증가함.
- FTA 이행 6~10년차 김치(1,647만 달러)와 표고버섯(46만 달러)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575.2%, 247.9%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함. 2014년부터 수출된 닭고기는 FTA 이행 6~10년차 평균 479만 달러가 수출됨.
- FTA 이행 6~10년차 배(3,233만 달러)와 감(임산물)(84만 달러)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34.9%와 502.0%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함.

〈표 5〉 對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증감률			對미국 비율	
		1년차('12)	5년차('16)	10년차(B)('21)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발효 전 평균	6~10년차 평균
<b>농산물 전체</b>	363	441	632	1,080	526	834	197.5	129.7	58.6	10.7	12.7
라면	20	22	36	81	28	62	306.3	208.6	121.0	14.0	12.0
기타 베이커리 제품	6	6	18	50	12	32	685.4	404.1	177.2	17.6	25.9
곡류조제품 <sup>4)</sup>	11	13	14	44	13	27	304.3	146.9	109.6	26.1	32.5
배	24	26	30	31	27	32	28.9	34.9	19.3	47.6	43.4
김치	2	4	6	28	5	16	-	575.2	224.9	2.7	13.2
비스킷	15	19	27	27	23	28	80.0	84.1	21.9	21.3	22.6
인스턴트면	3	6	7	26	6	16	826.4	470.2	142.9	18.3	29.4
빵	3	6	11	25	9	18	730.7	483.6	96.9	11.9	42.3
아이스크림	3	5	7	16	6	10	377.5	186.7	64.9	22.8	18.9
홍삼정	3	5	8	16	6	10	378.9	200.7	58.1	34.1	28.1
커피조제품	5	8	9	15	8	13	217.3	176.5	58.3	2.2	4.6
고추장	5	8	10	14	9	12	186.8	150.7	31.4	34.4	29.8
소주	9	9	11	13	10	13	42.1	43.8	31.9	7.8	14.7
국수	10	12	12	13	12	12	25.5	21.5	1.3	39.7	40.6
<b>임산물 전체</b>	16.7	16.4	48.1	113.1	30.0	89.5	578.5	436.8	198.5	5.7	20.2
밤	2.46	2.37	2.56	1.90	2.83	1.98	-22.6	-19.3	-30.1	8.4	10.9
감(임산물) <sup>5)</sup>	0.14	0.81	0.48	0.89	0.50	0.84	539.3	502.0	67.0	53.1	23.2
표고버섯	0.13	0.20	0.29	0.79	0.34	0.46	500.6	247.9	35.5	2.8	27.1
<b>축산물 전체</b>	21.8	26.9	35.3	70.3	33.7	54.7	222.6	151.2	62.6	6.6	11.9
연유	0.8	1.5	2.2	7.0	1.8	3.8	793.4	378.3	107.0	58.5	32.5
닭고기	0.0	0.0	2.9	5.9	1.5	4.8	-	-	218.0	0.0	11.3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출평균값이며, 對미국 비율은 각 연도 對세계 수출액에서 對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개년 평균값임.

2) 부류별 품목은 2021년 수출액이 농산물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 축산물은 5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 임산물은 7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에서 석재 또는 목재 관련 제품을 제외한 식용 임산물만을 제시함.

3) 증감률에서 증감률이 없거나 1,000% 이상인 품목은 '-'로 표시함.

4) 곡류조제품은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낱알 모양이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을 의미함.

5) 감(임산물)은 감을 햇볕에 직접 건조하거나 공업적인 방법(tunnel-drying)에 의하여 건조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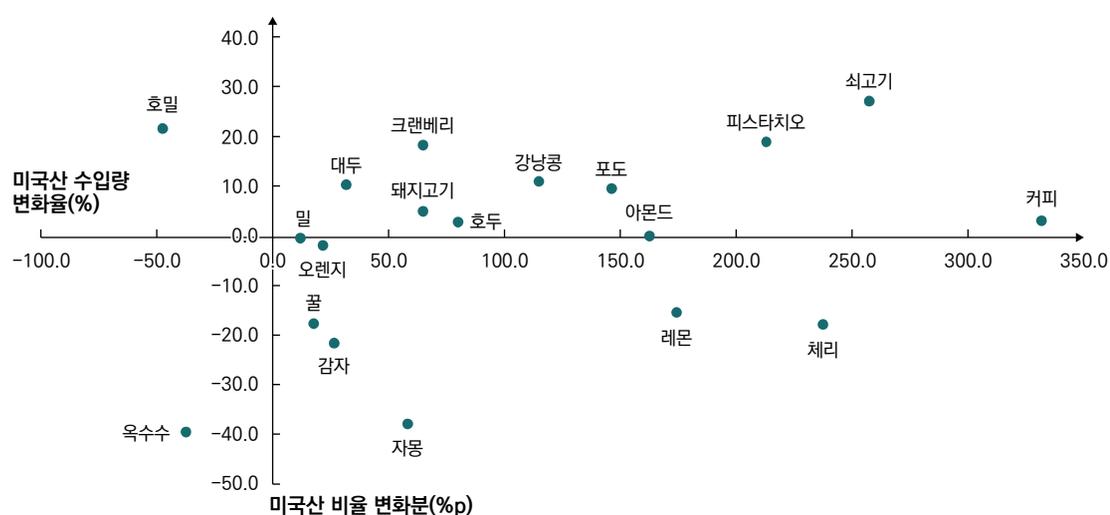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법령정보포털.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주요 신선 농축산물 수입량과 전체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FTA 발효 전보다 증가하고, 일부 품목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비율이 증가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대두, 강남콩, 커피, 호두와 피스타치오는 FTA 이행 6~10년차 수입량과 전체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증가했으며, 체리, 레몬, 자몽, 감자와 천연꿀은 미국산 비율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감소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256.9%와 64.8% 증가했고, 미국산 비율은 각각 27.5%p와 5.1%p 상승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대두와 강낭콩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1.5%와 114.7% 증가했고, 미국산 비율은 각각 10.6%p와 11.1%p 상승함.
- 체리, 레몬과 자몽은 각각 칠레산, EU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수입량 증가로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비율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17.8%p, 15.3%p와 37.7%p 하락함.
- 감자와 천연꿀은 각각 호주산과 아르헨티나·캐나다·뉴질랜드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비율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21.6%p와 17.5%p 하락함.

〈그림 1〉 미국산 주요 신선 농축산물(20개)의 수입량과 비율 변화



주 1) 미국산 수입량 증감률과 미국산 비율 변화분은 FTA 발효 전 평균(2007~2011년 산술평균)과 FTA 이행 6~10년차 평균(2017~2021년 산술 평균)을 비교한 값임. 단, 크랜베리는 FTA 발효 전 수입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본격화된 2013년과 비교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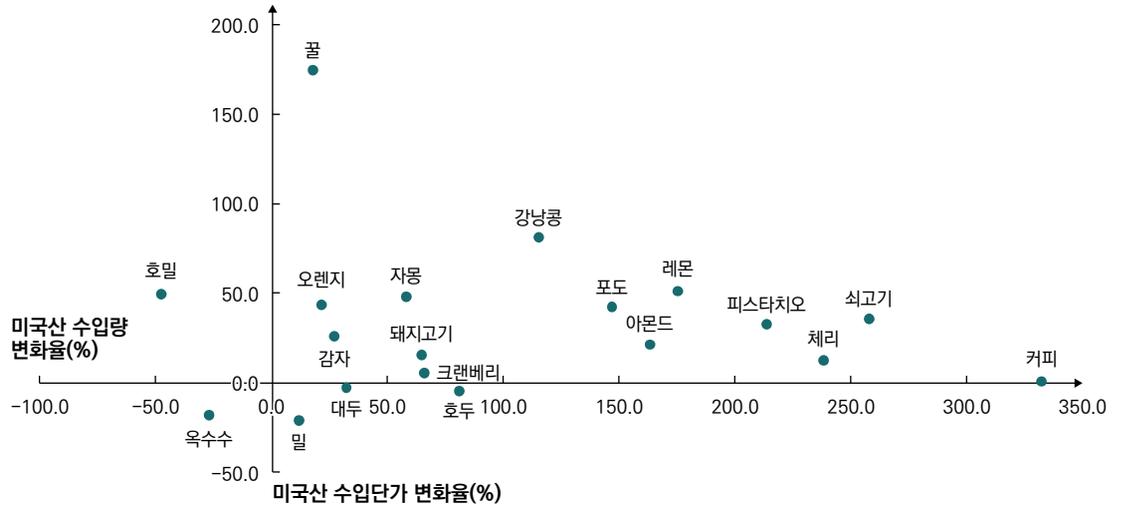
2) 주요 품목은 신선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2021년 기준 상위 20개 품목을 제시함. 그중에서 아보카도는 수입량이 1,000% 이상의 큰 폭으로 상승해 그래프에서 나타내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강낭콩과 아몬드는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평균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6.3%와 15.8% 상승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포도, 강낭콩과 아몬드 평균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43.1%, 81.5%와 21.4% 상승함.
-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7.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수입량과 비율이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7.2%와 39.5%p 하락함.

〈그림 2〉 미국산 주요 신선 농축산물(20개)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변화



주 1) 미국산 수입량 증감률과 미국산 수입단가 변화율은 FTA 발효 전 평균(2007~2011년 산술평균)과 FTA 이행 6~10년차 평균(2017~2021년 산술평균)을 비교한 값임. 단, 크랜베리는 FTA 발효 전 수입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본격화된 2013년과 비교한 값임.  
 2) 주요 품목은 신선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2021년 기준 상위 20개 품목을 제시함. 그중에서 아보카도는 수입량이 1,000% 이상의 큰 폭으로 상승해 그래프에서 나타내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2. 한·미 FTA 협정관세 활용률 분석<sup>1)</sup>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협정관세 활용률<sup>2)</sup>과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sup>3)</sup>은 FTA 발효 후 상승추세를 보이며, 수입과 수출 모두 축산분야에서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71.6%로 FTA 이행 1년차 대비 26.5%p 상승했으며, 축산물(95.9%), 임산물(80.4%), 농산물(57.1%)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6〉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2%로 FTA 이행 1년차 대비 26.1%p,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8.6%p 상승함.
- 쇠고기, 돼지고기와 체리의 FTA 이행 6~10년차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100.0%이며, 오렌지(92.8%), 포도(98.9%), 감자(97.8%), 치즈(99.7%)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농산물에서 오렌지의 FTA 이행 6~10년차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8.1%p 상승했으며, 축산물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3.3%p와 5.6%p 상승함.

1)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협정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FTA 대상 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실제 FTA 관세 인하 혜택(협정관세 활용)을 받은 교역액 비율을 의미하며, FTA가 상품교역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됨.  
 2)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 FTA 관세 인하 혜택 수입액 / FTA 양허 대상 품목 수입액 × 100  
 3)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액 / FTA 양허 대상 품목 수출액 × 100

〈표 6〉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FTA 이행					증감분(%p)		
	1년차(A) (’12)	5년차 (’16)	10년차(B) (’21)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b>전체</b>	45.2	68.3	71.6	62.6	71.2	26.5	26.1	8.6
<b>농산물 전체</b>	36.2	54.2	57.1	49.8	56.4	21.0	20.3	6.7
농 산 물	옥수수	0.5	10.6	15.0	7.6	14.5	14.4	7.3
	밀	52.2	99.9	73.8	81.3	86.8	21.7	34.7
	대두	1.3	7.0	7.0	5.1	6.3	5.8	5.0
	오렌지	70.9	89.0	97.0	84.7	92.8	26.1	21.9
	감자	77.3	99.4	98.6	95.5	97.8	21.4	20.5
	체리	99.1	99.9	100.0	99.7	100.0	0.9	0.9
	커피	59.3	98.1	98.6	85.1	98.8	39.3	39.5
	포도주	79.0	93.1	93.2	90.9	93.7	14.1	14.7
	포도	90.7	97.8	98.7	96.9	98.9	8.0	8.2
	레몬	80.3	98.6	98.0	96.4	98.5	17.7	18.1
<b>임산물 전체</b>	52.9	79.5	80.4	72.0	80.7	27.5	27.9	8.7
임 산 물	아몬드	87.2	99.9	99.9	98.1	99.9	12.7	12.7
	호두	77.3	99.9	98.4	95.8	99.3	21.1	22.0
	기타 견과류	77.9	87.3	99.6	93.2	99.6	21.7	21.7
	피스타치오	85.1	99.0	99.6	96.3	99.5	14.5	14.4
<b>축산물 전체</b>	70.1	98.4	95.9	92.5	97.9	25.8	27.8	5.4
축 산 물	쇠고기	77.2	99.9	100.0	96.7	100.0	22.8	22.8
	돼지고기	72.5	99.9	100.0	94.4	100.0	27.5	27.5
	치즈	70.3	99.4	99.9	95.4	99.7	29.6	29.4
	버터	33.5	89.4	89.8	86.0	86.9	56.2	53.4
	탈지분유	50.9	91.1	66.5	74.7	64.7	15.6	13.8

주 1) FTA 이행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출평균값임.  
 2) 주요 품목은 〈표 4〉에서 제시한 품목에서 일부 가공품을 제외함.  
 3) FTA 협정관세 활용률의 증감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에 따라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법령정보포털.

FTA 이행 10년차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49.5%로 이행 1년차 대비 6.5%p 상승했으며, 축산물(70.7%), 농산물(50.8%), 임산물(23.7%)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7〉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對미국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48.0%로 FTA 이행 1년차 대비 5.0%p 상승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는 1.2%p 상승함.
- FTA 이행 6~10년차를 기준으로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라면(94.8%), 홍삼정(86.4%), 소주(95.4%)이며, 고추장(62.8%)과 닭고기(63.6%)도 60% 이상의 활용률을 보임.
- 라면, 홍삼정, 소주의 FTA 이행 6~10년차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각각 20.3%p, 24.9%p, 33.9%p 상승했으며, 축산물에서 닭고기는 57.6%p 큰 폭으로 상승함.
- 밤(36.8%)과 감(59.5%)의 경우 FTA 이행 6~10년차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각각 23.5%p와 15.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FTA 이행					증감분(%p)		
	1년차(A) ( '12)	5년차 ( '16)	10년차(B) ( '21)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b>전체</b>	42.9	48.5	49.5	46.8	48.0	6.5	5.0	1.2
<b>농산물 전체</b>	40.1	47.1	50.8	44.8	48.2	10.7	8.1	3.4
라면	49.6	85.3	92.0	74.5	94.8	42.4	45.2	20.3
배	42.7	70.1	55.9	53.1	52.8	13.3	10.1	-0.3
김치	26.1	19.2	65.6	45.6	48.5	39.5	22.3	2.8
비스킷	54.3	50.0	35.4	57.5	45.4	-18.9	-8.9	-12.1
인스턴트면	18.8	56.9	76.2	39.3	65.0	57.4	46.2	25.7
빵	23.1	30.3	45.8	26.6	40.9	22.6	17.8	14.3
아이스크림	35.6	11.6	10.6	15.0	11.9	-25.1	-23.7	-3.1
홍삼정	46.2	89.9	88.1	61.5	86.4	41.9	40.1	24.9
커피조제품	42.2	59.4	26.5	63.6	22.3	-15.8	-19.9	-41.3
고추장	28.4	54.7	68.9	46.2	62.8	40.6	34.5	16.6
소주	36.2	94.5	95.0	61.5	95.4	58.8	59.2	33.9
국수	45.8	58.6	61.3	52.3	58.3	15.5	12.5	5.9
<b>임산물 전체</b>	51.9	47.8	23.7	50.6	29.5	-28.2	-22.4	-21.1
밤	85.2	83.0	40.3	60.3	36.8	-44.9	-48.4	-23.5
감(임산물)	84.5	65.8	73.6	74.9	59.5	-10.9	-25.0	-15.5
표고버섯	61.7	16.5	47.8	27.8	34.5	-13.9	-27.3	6.6
<b>축산물 전체</b>	83.4	74.9	70.7	73.4	74.4	-12.7	-9.0	1.0
연유	42.7	9.5	0.6	12.3	0.3	-42.1	-42.4	-12.0
닭고기	0.0	2.7	79.7	6.0	63.6	79.7	63.6	57.6

주 1) FTA 이행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주요 품목은 〈표 5〉에서 제시한 품목에서 일부 가공품을 제외한 것임.

3) FTA 협정관세 활용률의 증감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에 따라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법령정보포털.

### 2.3. 품목별 TRQ 소진율 및 ASG 분석

한·미 FTA 발효 후 16개 TRQ 적용 대상 품목들의 TRQ 소진율은 평균 5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FTA TRQ 적용 대상 품목 중 TRQ 소진율이 높은 품목은 치즈류, 천연꿀, 오렌지, 식용 대두, 사료용 식물이고, TRQ 소진율이 낮은 품목은 탈·전지분유, 조제분유, 옥수수전분, 감자, 보리, 맥아·맥주맥과 텍스트린임(〈표 8〉 참고).

- 치즈, 오렌지, 식용 대두와 천연꿀의 TRQ 소진율은 평균 90% 이상임.
- 조제분유는 EU와 뉴질랜드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라 2016년 이후 TRQ 수입실적이 없으며, 식용유장과 버터의 FTA 이행 10년차 TRQ 물량은 무제한으로 TRQ 수입실적이 없음.

- aT 수입권 공매로 배분되는 탈·전지분유, 감자, 보리, 맥아·맥주맥은 뉴질랜드(탈·전지분유)와 호주(보리, 맥아·맥주맥)가 주요 수입국임. 수입업체들의 미국산 해당 품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의 TRQ 소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8〉 미국산 TRQ 수입실적 및 소진율

단위: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탈·전지분유	수입량	901	5,143	5,306	4,962	5,624	5,796	5,967	4,653	2,807	3,314
	소진율	18.0	99.9	100.0	90.8	99.9	100.0	99.9	75.7	44.3	50.8
치즈류	수입량	6,798	7,165	7,300	7,538	7,784	8,062	8,327	8,564	8,812	9,048
	소진율	97.1	99.4	98.3	98.6	98.8	99.3	99.6	99.5	99.4	99.1
천연꿀	수입량	200	205	212	186	225	232	239	246	235	259
	소진율	99.8	99.5	99.9	84.9	100.1	100.0	100.0	100.0	92.7	99.1
조제분유	수입량	15	17	0	8	0	0	0	0	0	0
	소진율	2.2	2.3	0.0	1.1	0.0	0.0	0.0	0.0	0.0	0.0
옥수수전분	수입량	30	53	133	79	79	126	309	109	277	325
	소진율	0.3	0.5	1.3	0.7	0.7	1.1	2.6	0.9	2.2	2.5
오렌지	수입량	520	2,587	2,386	2,570	2,903	2,865	2,391	3,335	2,638	3,425
	소진율	20.8	100.0	90.0	94.1	100.0	98.9	80.1	100.0	83.3	100.0
감자	수입량	609	0	0	0	104	1,423	1,660	228	255	1,249
	소진율	20.3	0.0	0.0	0.0	3.1	40.9	46.3	6.2	6.7	31.9
식용 유장	수입량	2,065	2,951	2,557	2,840	2,384	2,576	2,423	1,997	2,394	-
	소진율	68.8	95.5	80.3	86.6	70.6	74.1	67.6	54.1	63.0	-
식용 대두	수입량	3,453	12,046	23,652	25,295	26,510	27,284	27,998	29,105	29,841	30,401
	소진율	34.5	60.2	94.6	98.2	100.0	99.9	99.5	100.0	100.0	98.9
사료용식물	수입량	196,586	198,193	199,753	200,091	198,302	195,039	200,001	198,532	198,294	199,870
	소진율	98.3	99.1	99.9	100.0	99.2	97.5	100.0	99.3	99.1	99.9
보조사료	수입량	5,260	5,627	5,686	5,514	5,399	5,318	5,290	5,887	5,366	4,652
	소진율	95.6	99.3	97.4	91.7	87.2	83.4	80.6	87.0	77.0	64.8
보리	수입량	1,290	1,682	1,126	1,531	723	1,357	870	1,908	1,237	1,512
	소진율	51.6	66.0	43.3	57.7	26.7	49.2	30.9	66.4	42.2	50.6
버터	수입량	187	206	212	111	195	209	239	246	191	-
	소진율	93.5	100.0	100.0	50.6	86.7	90.2	100.0	99.9	75.5	-
맥아 맥주맥	수입량	815	4,363	6,373	1,718	1,155	3,127	7,633	6,751	1,191	1,407
	소진율	9.1	47.5	68.1	18.0	11.9	31.5	75.3	65.3	11.3	13.1
텍스트린	수입량	188	1,123	1,332	1,369	1,675	2,209	3,084	3,218	4,069	3,793
	소진율	1.3	7.8	9.0	8.9	10.6	13.6	18.4	18.7	22.9	20.8
TRQ 소진율 평균		44.5	61.1	61.4	55.1	56.0	61.2	62.6	60.8	51.2	45.7

주 1) 수입량은 TRQ로 수입된 실적을 의미하며, TRQ 소진율은 TRQ 기준수량에서 실제 TRQ 실적으로 수입된 물량의 비율임.

2) 인삼의 경우 수입권 공매 입찰 미등록으로 인하여 2012~2021년 TRQ 수입실적이 없으며, 표에도 제시하지 않음.

3) TRQ 소진율 평균은 연도별 품목별 소진율의 평균값임.

4) 음영 표시한 부분은 TRQ 소진율이 9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5) 식용 유장은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우유에서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은 천연구성성분을 말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한·미 FTA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미국산 콩류, 팥콘, 옥수수(기타)와 메밀은 4년 이상 ASG가 발동되었으며, 곡류·곡물의 분쇄물 등은 ASG가 2차례 발동됨(〈표 9〉 참고).

- 미국산 메밀과 콩류는 2015년까지 중간·주발동수준이 모두 적용되었고, 2016년부터는 주발동수준이 적용됨. 미국산 메밀과 콩류는 2015년에 15%의 중간발동수준 관세율과 주발동수준의 관세율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15년 철폐 일정에 따른 주발동수준 관세율을 적용받음(2021년 기준 메밀 172%, 녹두 409%, 팥 283%).
- 그 외에 팥콘(2012~2015년), 옥수수(기타)(2014~2017년), 곡류·곡물의 분쇄물 등(2017년, 2021년)에 ASG가 발동됨.

**〈표 9〉 한·미 FTA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발동 현황**

단위: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콩류 (녹두, 팥)	주발동수준	238	298	357	417	476	500	524	547	571	595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	○(22)	○(-)	○(-)	○(-)	○(-)	
	중간발동수준	119	186	268	364	-	-	-	-	-	-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53)	-	-	-	-	-	-
팥콘	중간발동수준	2,556	3,994	5,751	7,828	-	-	-	-	-	-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9)	○(37)	-	-	-	-	-	-
옥수수 (기타)	주발동수준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412,603	-	-	-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	○(-)	○(-)	-	-	-	-
	중간발동수준	93,774	146,521	210,990	287,181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41)	○(23)						
메밀	주발동수준	250	313	375	438	500	525	550	575	600	625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	○(450)	○(15)	○(225)	○(113)	○(179)	○(278)
	중간발동수준	125	195	281	383	-	-	-	-	-	-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55)	-	-	-	-	-	-
곡류·곡물의 분쇄물 등	주발동수준	128	136	145	154	163	173	184	196	208	221
	물량소진여부(초과 물량)	-	-	-	-	-	○(17)	-	-	-	○(-)

주 1) 한·미 FTA ASG 발동 현황은 ASG가 발동된 사례가 있는 품목만 제시함.  
 2) 구분에서 물량소진여부는 ASG 발동수준이 소진되었는지를 나타내고, ( )의 초과 물량은 ASG 발동수준을 초과해 수입된 물량을 나타냄.  
 자료: FTA 강국 KOREA;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 03

## 주요 품목별 교역 변화

### 3.1. 축산물

#### 3.1.1. 쇠고기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함.<sup>4)</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5만 9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93.5% 증가함 (<표 10>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평균 수입량은 23만 5천 톤으로 2008년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파동에 따른 기저효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56.9%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94.9% 증가함.
- 최근에는 국산 한우 가격 상승,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가정 내 냉장 쇠고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7.36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36.3%,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66	106	169	259	121	235	293.5	256.9	94.9
기본세율	1	0	0	0	0	0	-100.0	-	-
WTO협정세율(고세율)	3	2	0	0	0	0	-100.0	-	-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 미추천)	61	21	0	0	4	0	-100.0	-	-99.9
FTA 협정세율(선택 1)	0	82	168	259	116	235	-	-	102.9
수입단가	5.40	4.94	6.14	8.38	6.11	7.36	55.2	36.3	20.4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쇠고기 수입량은 신선·냉장, 냉동과 설육을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함.

4)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4) 미국산 쇠고기의 기준세율(40%)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했으며, 도체/이분도체(냉장·냉동)와 부분육(냉장·냉동)에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적용됨. ASG 발동물량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 차에 35만 4천 톤을 적용하며, ASG 발동세율은 5년차까지는 40%, 6~10년차에는 30%, 11~15년차에는 24%가 적용됨.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4.3%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2.8%로 크게 상승함(표 11) 참고).

-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부터 2015년까지 4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미국산 수입량 증가, 암소감축사업(2012~2013년)과 폐업지원사업(2013~2014년)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19년 33.8%까지 하락함. 최근에는 한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생산 규모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 발병으로 200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향한 불안감이 점차 완화되고, 냉장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 쇠고기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까지는 호주산보다 낮았음. 2017년부터 미국산 수입량이 호주산 수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미국산과 호주산 비율은 각각 51.3%와 39.1%를 기록함.

〈표 11〉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459	533	558	574	582	631	653	690	726	730	769
국내 생산량(B)	189	234	260	261	255	231	239	237	245	249	264
(비율, B/A)	(41.2)	(44)	(46.6)	(45.5)	(43.8)	(36.6)	(36.6)	(34.3)	(33.8)	(34.1)	(34.3)
총수입량(C)	271	299	301	315	331	403	414	454	481	482	505
미국(D)	66	106	101	112	115	169	190	224	248	254	259
(비율, D/A)	(14.3)	(19.9)	(18.2)	(19.5)	(19.8)	(26.7)	(29.1)	(32.5)	(34.1)	(34.8)	(33.7)
(비율, D/C)	(24.3)	(35.4)	(33.7)	(35.4)	(34.8)	(41.8)	(45.9)	(49.4)	(51.5)	(52.7)	(51.3)
호주	160	156	166	173	189	198	190	195	197	191	197
뉴질랜드	40	33	30	27	23	27	23	25	21	20	25
기타	5	4	3	4	3	9	11	10	15	17	23
총수출량(E)	1.3	0.7	3.0	2.2	4.0	3.7	0.3	0.5	0.2	0.3	0.2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쇠고기 수입량은 냉동, 냉장, 신선육 모두 포함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2021년 국내 생산량은 2022 KREI 농업전망 추정치임.

6) 총수입량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3.1.2. 돼지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후 많이 증가했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에 그침.<sup>5)</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5만 8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46.0% 증가함(〈표 12〉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평균 수입량은 18만 8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6%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41.3% 증가함.
- 2011~2012년에는 국내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도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돼지고기에 일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됨.
- 2014년 국내에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영향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함. 이에 따라 FTA 이행 1~5년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95달러로 FTA 발효 전보다 20.8% 상승함.
- 한편,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83달러로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7~2018년 유럽과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영향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미국 내 가격 하락, 관세 인하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108	131	149	158	133	188	46.0	73.6	41.3
기본세율	33	7	0	0	1	0	-	-	-99.6
WTO협정세율(고세율)	63	11	0	0	2	0	-	-	-99.8
FTA 협정세율(선택 1)	0	98	149	158	126	188	-	-	48.9
할당관세(추천, 저세율)	12	16	0	0	3	0	-	-	-
수입단가	2.44	2.98	2.64	3.28	2.95	2.83	34.4	15.8	-4.1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돼지고기 수입량은 신선·냉장, 냉동과 설육을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4)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5) 미국산 돼지고기 중 냉장 삼겹살과 기타에 적용되는 관세(22.5%)는 10년간 철폐(2021년)하며, 1년차 8,250톤부터 10년차 13,938톤(매년 6% 증량)의 ASG가 적용됨. ASG 발동세율은 5년차까지는 22.5%, 6년차에는 15.8%, 10년차에는 11.3%가 적용됨.

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0.3%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12.3%로 소폭 상승함(표 13) 참고).

-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과 EU산 수입량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2018년 60.3%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국내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다시 하락함.
- 돼지고기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중국과 독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으로 2020년에 39.3%까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자국 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우리나라의 EU산 수입량 회복 등으로 미국산 비율이 하락함.

〈표 13〉 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1,054	1,151	1,174	1,222	1,340	1,391	1,436	1,566	1,582	1,541	1,448
국내 생산량(B)	695	750	854	830	849	891	904	945	1,013	1,097	989
(비율, B/A)	(65.9)	(65.1)	(72.7)	(67.9)	(63.3)	(64.0)	(63.0)	(60.3)	(64.0)	(71.2)	(68.3)
총수입량(C)	367	403	322	394	494	502	533	622	571	449	466
미국(D)	108	131	112	121	151	149	170	225	210	176	158
(비율, D/A)	(10.3)	(11.4)	(9.5)	(9.9)	(11.2)	(10.7)	(11.8)	(14.4)	(13.3)	(11.4)	(10.9)
(비율, D/C)	(29.5)	(32.6)	(34.8)	(30.8)	(30.5)	(29.7)	(31.8)	(36.2)	(36.8)	(39.3)	(33.9)
EU27	144	162	129	199	253	264	278	306	268	191	216
캐나다	66	62	43	38	47	42	41	43	45	41	48
기타	48	47	38	35	43	48	44	48	47	40	44
총수출량(E)	7.3	1.3	1.9	1.9	2.2	2.1	1.5	0.9	1.3	4.5	7.7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돼지고기 수입량은 냉동, 냉장, 신선육 모두 포함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2021년 국내 생산량은 2022 KREI 농업전망 추정치임.

6) 총수입량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3.1.3. 치즈

미국산 치즈 수입량과 국내 시장점유율은 우유 소비패턴 변화(음용유 소비 정체 또는 감소)로 인한 치즈 수요 증가로 FTA 발효 이후 크게 상승함.<sup>6)</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6만 8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326.0% 증가함(표 14)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치즈 평균 수입량은 5만 9천 톤으로 관세 인하 및 무관세 TRQ 물량 확대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69.8%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25.8% 증가함.
- 미국산 치즈 수입량의 85.2%(FTA 이행 6~10년차 평균 기준)는 FTA 협정세율(선택 1)로 수입되며, 나머지는 TRQ 무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치즈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4.21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2.2%,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미국산 치즈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16	32	40	68	47	59	326.0	269.8	25.8
기본세율(36%)	8	4	0	0	1	0	-99.3	-98.3	-86.9
WTO협정세율(고세율)	6	1	0	0	0	0	-	-	-
FTA 협정세율(TRQ 추천)	0	7	8	9	7	9	-	-	17.0
FTA 협정세율(선택 1)	0	16	32	58	37	50	-	-	34.1
FTA 협정세율(추천, 저세율)	2	4	0	0	1	0	-	-	-
수입단가	4.31	4.41	4.22	4.29	4.40	4.21	-0.3	-2.2	-4.3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치즈 수입량은 신선 치즈와 가공용 치즈를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TRQ 추천)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의미하며,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함.  
 4) FTA 협정세율(추천, 저세율)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이며, 모차렐라 치즈, 체더 치즈, 하우다 치즈만 적용됨.  
 5)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9.5%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3.1%로 크게 상승함(표 15) 참고).

- 국내산 치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30.6%에서 2015년 17.3%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하였으나 FTA 발효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치즈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28.0%에서 2014년 65.7%까지 상승함. 2015년 이후에는 EU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미국산 비율은 2021년 43.2%까지 하락함.

6) 미국산 치즈에 적용되는 관세(36%)는 체더치즈는 10년간, 체더치즈 이외는 15년간 철폐하기로 했으며, 치즈 전체에는 TRQ가 적용됨. TRQ 물량은 1년차에 7천 톤 이후 매년 3%씩 증량되어 10년차(2021년) 9,133톤, 15년차(2026년)에는 무제한 물량이 적용됨.

〈표 15〉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81	100	107	121	134	138	160	161	172	192	200
국내 생산량(B)	25	23	22	24	23	29	35	37	41	45	45
(비율, B/A)	(30.6)	(22.5)	(20.9)	(19.7)	(17.3)	(20.9)	(22.0)	(23.2)	(24.1)	(23.3)	(22.3)
총수입량(C)	57	78	85	97	112	110	125	124	131	148	157
미국(D)	16	32	43	64	55	40	49	53	61	62	68
(비율, D/A)	(19.5)	(31.9)	(39.6)	(52.9)	(40.8)	(28.9)	(30.7)	(33.2)	(35.6)	(32.2)	(33.8)
(비율, D/C)	(28.0)	(41.1)	(50.0)	(65.7)	(49.2)	(36.5)	(39.2)	(43.1)	(46.8)	(41.8)	(43.2)
EU27	6	11	11	16	32	45	44	39	40	51	52
뉴질랜드	18	24	24	10	16	17	20	22	20	26	28
기타	16	10	8	7	9	8	12	10	10	9	9
총수출량(E)	0.1	0.1	0.2	0.2	0.5	0.4	0.3	0.3	0.5	0.7	1.3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치즈 수입량은 신선 치즈와 가공용 치즈를 모두 포함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치즈의 국내 생산량은 낙농진흥회 우유제품 수급통계의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를 모두 포함한 값임.

6) 총수입량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3.2. 식량작물

### 3.2.1. 밀

미국산 밀 수입량은 FTA 발효 이후 소폭 증가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 수입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sup>7)</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밀 수입량은 181만 4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39.8% 증가함(〈표 16〉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밀 평균 수입량은 145만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1.7%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는 2.1% 증가함.
- 미국산 밀은 한·미 FTA 발효 전 기본세율과 할당관세로 수입되다가 FTA 발효 후 대부분 FTA 협정 세율로 수입됨. 특히, 2012년에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제분용 밀 27만 6천 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밀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27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21.9% 하락했고,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15.0% 하락함.

7) 미국산 사료용/제분용/기타 밀의 기준관세(1.8%)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되었으며, 밀가루에 적용되는 관세(4.2%)는 5년간 철폐하기로 하여 20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됨.

〈표 16〉 미국산 밀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1,298	2,401	1,117	1,814	1,420	1,450	39.8	11.7	2.1
기본세율(36%)	351	962	1	553	234	216	57.3	-38.4	-7.6
WTO협정세율(고세율)	82	1	0	0	0	0	-100.0	-100.0	-100.0
FTA 협정세율(선택 1)	-	1,162	1,116	1,262	1,130	1,233	-	-	9.1
할당관세(추천, 저세율)	865	276	0	0	55	0	-100.0	-100.0	-100.0
수입단가	0.35	0.32	0.26	0.31	0.32	0.27	-11.7	-21.9	-15.0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출평균값임.  
 2) 밀 수입량은 사료용, 제분용 밀과 밀가루를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함.  
 4)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5)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미국산 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국내 시장점유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표 17〉 참고).

- 미국산 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34.0%에서 2016년 24.9%까지 하락함. 2017년 이후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의 수입대체(미국, EU, 캐나다)와 미국의 밀 작황 호조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냄.
- 국내 밀 생산량은 FTA 발효 전 2만 4천 톤에서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3만 7천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표 17〉 미국산 밀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3,819	5,707	4,708	3,779	4,069	4,476	4,246	3,870	3,732	3,692	4,409
국내 생산량(B)	24	37	19	23	26	39	37	26	15	17	17
(비율, B/A)	(0.6)	(0.6)	(0.4)	(0.6)	(0.6)	(0.9)	(0.9)	(0.7)	(0.4)	(0.5)	(0.4)
총수입량(C)	3,807	5,685	4,706	3,775	4,064	4,461	4,243	3,885	3,761	3,721	4,436
미국(D)	1,298	2,401	1,139	1,277	1,165	1,117	1,389	1,367	1,239	1,439	1,814
(비율, D/A)	(34.0)	(42.1)	(24.2)	(33.8)	(28.6)	(24.9)	(32.7)	(35.3)	(33.2)	(39.0)	(41.2)
(비율, D/C)	(34.1)	(42.2)	(24.2)	(33.8)	(28.7)	(25.0)	(32.7)	(35.2)	(32.9)	(38.7)	(40.9)
호주	997	2,293	954	1,023	1,075	1,052	1,092	1,057	1,105	1,038	1,177
EU27	105	1	737	316	608	241	253	8	352	396	736
기타	1,407	990	1,876	1,158	1,216	2,052	1,509	1,453	1,065	848	709
총수출량(E)	11	16	18	19	21	24	34	40	44	46	44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출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밀 수입량은 사료용, 제분용 밀과 밀가루를 모두 포함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2021년 밀 생산량은 통계 미발표로 2020년 생산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 3.2.2. 대두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식용 대두의 TRQ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보다 많이 증가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전·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sup>8)</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54만 6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표 18)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대두 평균 수입량은 71만 1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31.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량이 전체의 71.7%를 차지함.
- 미국산 대두는 FTA 발효 전부터 WTO 시장접근물량(식용 대두) 및 할당관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물량을 중심으로 수입되었으며, 할당관세 수입량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대두박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산 대두의 FTA TRQ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FTA 이행 1~5년차 평균 1만 8천 톤에서 6~10년차 평균 2만 9천 톤으로 59.0% 증가함. 동 기간 WTO 시장접근물량 수입량은 20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15.8% 감소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대두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47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9% 하락했고,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19.0% 하락함.

〈표 18〉 미국산 대두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 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543	496	622	546	563	711	0.6	31.0	26.3
기본세율(36%)	3	0	0	0	0	0	-100.0	-100.0	-99.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미추천)	1	0	0	0	0	0	-99.9	-55.5	-23.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추천)	136	186	196	180	202	170	32.5	25.0	-15.8
FTA 협정세율(TRQ)	-	3	27	30	18	29	-	-	59.0
FTA 협정세율(선택1)	-	1	2	0	2	1	-	-	-32.7
FTA 협정세율(선택2)	-	0	0	1	1	1	-	-	26.6
할당관세(추천, 저세율)	403	305	397	334	340	510	-17.1	26.5	49.8
수입단가	0.50	0.63	0.47	0.58	0.58	0.47	18.0	-4.9	-19.0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대두 수입량은 식용, 콩나물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을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협정세율(선택 2)은 하나의 품목 세번에 적용되는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 중 최고세율인 FTA 협정세율(선택 1)을 제외하고 부여된 세율을 의미함.

4)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5) 전체 수입량과 관세를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8) 미국산 식용 대두는 현행관세(487%)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5만 톤, 4년차 2만 5,750톤, 5년차 2만 6,523톤 이후 매년 복리 3%씩 증량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제공되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관세(487%)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됨.

미국산 대두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후 브라질산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 브라질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함(〈표 19〉 참고).

- 2018~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수입량에서 브라질산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함.
- 국내 대두 생산량은 2013년(15만 4천 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태풍 피해로 대폭 감소함. 이후 2018년부터 시작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영향으로 논콩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표 19〉 미국산 대두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1,338	1,278	1,285	1,417	1,433	1,417	1,389	1,346	1,387	1,424	1,389
국내 생산량(B)	124	123	154	139	104	75	86	89	105	81	111
(비율, B/A)	(9.3)	(9.6)	(12.0)	(9.8)	(7.2)	(5.3)	(6.2)	(6.6)	(7.6)	(5.7)	(8.0)
총수입량(C)	1,214	1,156	1,133	1,279	1,330	1,343	1,303	1,257	1,282	1,344	1,278
미국(D)	543	496	554	610	532	622	586	696	1,075	650	546
(비율, D/A)	(40.5)	(38.8)	(43.1)	(43.0)	(37.1)	(43.9)	(42.2)	(51.7)	(77.5)	(45.6)	(39.3)
(비율, D/C)	(44.7)	(42.9)	(48.9)	(47.7)	(40.0)	(46.3)	(45.0)	(55.4)	(83.9)	(48.4)	(42.7)
브라질	484	359	397	466	746	484	496	472	119	613	655
중국	159	124	55	75	27	37	42	52	48	42	40
기타	30	177	127	128	25	200	179	37	40	38	37
총수출량(E)	0.206	0.182	1.786	0.436	0.334	0.866	0.047	0.154	0.022	0.212	0.227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대두 수입량은 식용, 공나물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을 모두 포함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 3.2.3. 감자

미국산 감자 수입량은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EU 및 캐나다산 프렌치 프라이용 감자 수입량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하락추세를 보임.<sup>9)</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감자 수입량은 9만 7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4.7% 증가함(〈표 20〉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감자 평균 수입량은 10만 7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94.0%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는 5.7% 증가함.

9) 미국산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3천 톤부터 복리 3%씩 증량되는 TRQ를 제공하며, 미국산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성출하기(5~11월)에는 8년차부터 8단계 감축, 비성출하기(12~4월)에는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 미국산 감자 수입량은 가공용(프렌치프라이용 및 칩용) 감자 위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에 수입이 집중되는 반면, 프렌치프라이용 감자는 연중 수입됨.
- FTA 협정세율(선택1)로 수입되는 프렌치프라이용 감자 수입량은 감자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FTA 이행 1~5년차 평균 8만 톤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9만 톤으로 12.8% 증가함.
-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칩용 감자 수입량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1만 5천 톤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1만 2천 톤으로 24.9% 감소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감자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24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3.1% 상승했고,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6.1% 상승함.

〈표 20〉 미국산 감자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55	87	102	97	101	107	74.7	94.0	5.7
기본세율	18	6	0	0	1	0	-97.5	-99.4	-91.9
WTO협정세율(고세율)	24	6	0	0	1	0	-100.0	-100.0	-100.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추천)	13	10	1	2	3	4	-87.3	-68.9	35.8
FTA 협정세율(TRQ)	-	1	0	1	0	1	-	-	575.3
FTA 협정세율(선택1)	-	57	90	85	80	90	-	-	12.8
FTA 협정세율(선택2,3)	-	7	11	8	15	12	-	-	-24.9
수입단가	1.01	1.11	1.21	1.45	1.17	1.24	43.8	23.1	6.1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출평균값임.

2) 감자 수입량은 냉동, 칩용, 프렌치프라이용을 모두 포함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FTA 협정세율(선택 2,3)은 계절관세를 의미함.

4) FTA 협정세율(TRQ)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5)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미국산 감자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하락추세를 보임. 감자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EU산 감자 수입 증가 영향으로 하락추세임(〈표 21〉 참고).<sup>10)</sup>

- 감자는 국산 자급률이 비교적 높은 품목이며,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 감자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낮음.
- 미국산 감자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8.2%에서 2017년 국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17.5%까지 상승함. 이후에는 국내 생산량 증가, EU산과 캐나다산 프렌치프라이용 감자 수입량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10) 감자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재배면적이 늘어나 2019년까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급식 수요가 부진하면서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21〉 미국산 감자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673	716	847	710	688	705	625	710	855	715	723
국내 생산량(B)	602	608	727	591	538	556	467	548	690	553	564
(비율, B/A)	(89.5)	(84.8)	(85.9)	(83.1)	(78.2)	(78.8)	(74.7)	(77.1)	(80.7)	(77.3)	(78.0)
총수입량(C)	71	109	121	122	151	151	160	164	166	163	161
미국(D)	55	87	102	104	112	102	109	110	109	112	97
(비율, D/A)	(8.2)	(12.1)	(12.0)	(14.7)	(16.3)	(14.5)	(17.5)	(15.4)	(12.7)	(15.6)	(13.4)
(비율, D/C)	(77.5)	(79.3)	(84.2)	(85.3)	(74.0)	(67.8)	(68.5)	(66.7)	(65.5)	(68.3)	(59.8)
EU27	2	7	5	6	12	11	14	15	17	24	36
호주	7	12	10	6	15	24	20	20	17	13	17
기타	8	4	4	6	13	13	16	19	24	15	12
총수출량(E)	0.450	0.806	1.057	2.253	1.234	1.433	1.551	2.066	1.647	1.414	2.137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감자 수입량은 냉동, 칩용, 프렌치프라이용을 모두 포함한 값이며, HS코드별 수율은 고려하지 않음.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2021년 국내 생산량은 2022 KREI 농업전망 추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3.3. 과실

#### 3.3.1. 오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FTA 발효 이후 증가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함.<sup>11)</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 10만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4.0% 증가함(〈표 22〉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오렌지 평균 수입량은 11만 7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21.6% 증가했으나, 1~5년차 평균보다는 10.9% 감소함.
-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량의 88.4%가 국내산 감귤 비출하기의 FTA 협정세율(선택2)을 적용 받아 수입되며, 미국산 오렌지 품질 향상과 국내 수요 증가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증가함.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해상운송 및 컨테이너 문제들)에 더해 ‘쉽취가 더 편한(easier-to-peel)’ 과일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이 감소추세를 나타냄.<sup>12)</sup>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오렌지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71달러로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산 오렌지 생산비 증가로 FTA 발효 전 평균(1.19달러/kg)보다 4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1)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되는데, 국내산 감귤 성출하기인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의 관세는 50%를 유지하되 동 기간 TRQ 물량(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은 2,500톤을 시작으로 매년 3%(복리)씩 증가함.  
 12) USDA(2021). "Citrus Annual Republic of Korea."

〈표 22〉 미국산 오렌지(신선)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96	167	146	100	131	117	4.0	21.6	-10.9
기본세율(50%)	26.4	9.7	0.4	0.8	3.0	1.1	-96.9	-95.7	-62.8
WTO(미추천)	69.4	45.1	15.4	2.5	20.0	8.1	-96.3	-88.4	-59.7
FTA TRQ	-	0.5	2.9	3.4	2.2	2.9	-	100.0	33.6
FTA 협정세율(선택1)	-	0.3	0.9	0.6	0.4	1.3	-	-	200.3
FTA 협정세율(선택2)	-	111.3	126.9	92.2	105.0	103.0	-	-	-1.9
수입단가	1.19	1.26	1.43	1.84	1.45	1.71	55.3	44.2	17.6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도와 2017~2021년 산출평균값임.  
 2) 오렌지 수입량은 신선 오렌지만 집계한 값임.  
 3) FTA 협정세율(선택1)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50%) 적용을 의미하며, FTA 협정세율(선택2)은 비할기(3~8월) 협정관세율로 2012년(협정발효일) 30%로 인하 후 7년 철폐(2018년)를 의미함.  
 4) 전체 수입량과 관세를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많이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오렌지 수요 감소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하락추세를 보임(〈표 23〉 참고).

-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2.3%에서 이행 1~5년차 평균 16.6%로 상승했으나, 이행 6~10년차에는 평균 15.5%로 소폭 하락함.
-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산 수입량의 70~80%가 수입되는 시기인 3~4월 초 한국의 고품질 과일(만감류, 온실 딸기, 고당도 청포도)과의 경쟁이 심화하였기 때문임.<sup>13)</sup>

〈표 23〉 미국산 오렌지(신선)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782	828	808	786	752	765	739	764	754	774	724
국내 생산량(B)	680	654	655	688	640	610	597	621	630	659	615
(비율, B/A)	(87.0)	(79.0)	(81.1)	(87.5)	(85.1)	(79.7)	(80.8)	(81.3)	(83.5)	(85.1)	(84.9)
총수입량(C)	102	174	153	98	112	155	142	142	124	115	109
미국(D)	96	167	146	91	103	146	132	130	115	106	100
(비율, D/A)	(12.3)	(20.2)	(18.0)	(11.6)	(13.7)	(19.2)	(17.8)	(17.0)	(15.3)	(13.7)	(13.8)
(비율, D/C)	(94.1)	(96.0)	(95.4)	(92.7)	(92.1)	(94.5)	(93.0)	(91.0)	(92.8)	(91.8)	(91.1)
호주	0	2	1	0	1	1	2	3	3	6	7
남아프리카공화국	2	2	4	4	5	3	4	5	2	3	1
기타	3	3	3	3	3	4	4	5	4	1	1
총수출량(E)	0.043	0.029	0.001	0.004	0.001	0.006	0.009	0.009	0.003	0.014	0.029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출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오렌지 수입량은 신선 오렌지만 집계한 값이고, 국내 생산량은 감귤만을 집계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2021년 기준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국내 생산량은 감귤 생산량이며, 2021년 국내 생산량은 KREI 농업전망(2022)의 감귤 생산량 추정치임.  
 6) 총수입량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13) 상계서.

### 3.3.2. 포도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FTA 발효 후 많이 증가했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sup>14)</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1만 2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3.7% 증가함(표 24) 참고).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포도 평균 수입량은 1만 5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85.7%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도 120.6% 증가함.
- 국내산 비출하기 수입량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4,250톤에서 국내 과일류의 작황부진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와 미국산 작황호조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9,982톤으로 134.8% 증가함. 다만, 2018년 이후에는 미국 내 작황 부진과 품질 하락으로 수입량이 감소추세임.
- FTA 협정세율(선택1)을 적용받는 국내산 성출하기 수입량은 FTA 이행 1~5년차 평균 2,544톤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5,061톤으로 98.9% 증가함. 국내산 비출하기 수입량은 2018년 이후 감소했지만, 성출하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출하기 수입량 비율이 크게 높아짐.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포도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3.22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2.41달러/kg)과 1~5년차 평균(2.84달러/kg)보다 각각 33.8%,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미국산 포도(신선)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3,902	5,951	7,523	12,242	6,823	15,050	213.7	285.7	120.6
기본세율(45%)	3,227	27	11	0	28	7	-100.0	-99.8	-74.6
WTO협정세율(고세율)	675	-	-	-	-	-	-100.0	-100.0	-
FTA 협정세율(선택 1)	-	2,370	2,655	5,569	2,544	5,061	-	-	98.9
FTA 협정세율(선택 2)	-	3,554	4,857	6,672	4,250	9,982	-	-	134.8
수입단가	2.41	2.63	3.05	3.75	2.84	3.22	56.0	33.8	13.3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포도 수입량은 신선포도 수입량만 제시함.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한·미 FTA에 따라 인하되는 계절관세(5월 1일~10월 15일, 17단계 철폐)를 의미하며, FTA 협정세율(선택 2)은 계절관세(10월 16일~4월 30일, 24%로 인하 후 4단계 철폐)를 의미함.

4)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14) 미국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는 관세(45%)는 국내산 포도 성출하기인 5월 1일~10월 15일까지는 17년 철폐, 비출하기인 10월 16일~4월 30일까지는 협정발효일에 24%로 인하된 후 2년차부터 4년간 철폐됨.

미국산 포도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2%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5.2%로 상승함(표 25) 참고).

- 국내산 포도는 시장점유율이 평균 89.5%(FTA 발효 전 평균)로 자급률이 높은 품목이지만, 2015~2016년 폐업지원에 따른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감소추세를 보임. 최근에는 샤인머스켓 재배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다시 반등한 상황임.
- 미국산 포도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국내산 과일류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와 칠레산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2018년까지 확대됨. 최근에는 미국의 수확기 강우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시장점유율과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하락추세에 있음.

〈표 25〉 미국산 포도(신선)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318	289	278	288	289	277	240	234	233	221	235
국내 생산량(B)	285	235	220	229	224	229	190	175	166	166	188
(비율, B/A)	(89.5)	(81.4)	(79)	(79.6)	(77.4)	(82.8)	(79.2)	(74.9)	(71.2)	(75.2)	(79.9)
총수입량(C)	34	54	59	59	66	49	51	60	69	57	49
미국(D)	4	6	8	7	6	8	10	20	16	17	12
(비율, D/A)	(1.2)	(2.1)	(2.7)	(2.4)	(2.1)	(2.7)	(4.2)	(8.4)	(6.9)	(7.8)	(5.2)
(비율, D/C)	(11.6)	(11)	(12.9)	(11.9)	(9.1)	(15.4)	(19.8)	(32.8)	(23.3)	(30.2)	(24.8)
칠레	30	47	47	47	51	34	34	32	41	24	24
페루	0	2	4	5	9	7	7	8	9	7	9
기타	0	0	0	0	1	0	0	1	3	8	4
총수출량(E)	0.4	0.3	0.4	0.6	0.8	1.0	1.2	1.3	1.9	2.0	2.1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출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4) 포도 수입량은 신선포도 수입량만 제시함.

5) 2021년 국내 생산량은 2022 KREI 농업전망 추정치임.

6) 총수입량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3.3.3. 체리

미국산 체리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한·미 FTA 발효 전보다 수입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국내 시장점유율은 칠레산 체리 수입 영향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sup>15)</sup>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1만 2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05.4% 증가함(표 26) 참고).

15) 미국산 체리에 적용되는 기준관세율(24.0%)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었으며, 수입량 전체가 무관세로 수입됨.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체리 평균 수입량은 1만 3천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37.0% 증가했으며, 1~5년차 평균보다는 15.5% 증가함.
- 미국산 체리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국내 소득수준 향상과 고급 과일 선호 및 소비 다양화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체리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9.31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12.0% 상승했지만, 1~5년차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 미국산 체리(신선) 수입량 및 수입단가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 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입량	3,826	9,325	12,387	11,684	11,161	12,893	205.4	237.0	15.5
기본세율(45%)	1,266	0	12	0	5	5	-100.0	-99.6	0.3
WTO협정세율(고세율)	2,560	0	0	0	0	0	-100.0	-100.0	-
FTA 협정세율(선택 1)	-	9,325	12,375	11,683	11,156	12,888	-	-	15.5
수입단가	8.31	8.68	8.88	9.77	9.34	9.31	17.6	12.0	-0.4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2) 체리 수입량은 신선 체리 수입량만 제시함.  
 3) FTA 협정세율(선택 1)은 F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을 의미함.  
 4) 전체 수입량과 관세율 종류별 수입량의 합계는 반올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량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FTA 발효 전에는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2015~16년 미국 내 주산지(워싱턴 주)의 작황 부진 및 칠레산 체리 수입 증가로 미국산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표 27〉 참고).

-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 비율은 한·미 FTA 발효 후 FTA 이행 4년차까지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부터 칠레산 체리가 수입되면서 2021년 67.0%까지 하락함.
- 칠레산 체리에 적용되는 관세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감축되어 2014년에 완전히 철폐되었으나, 검역 문제로 수입이 제한됐음. 2016년 1월 칠레산 체리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해제되면서 칠레산 체리 수입량이 증가했고, 미국산 수입량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sup>16)</sup>

16) 국내 체리 수입시기는 하절기(미국산, 5~8월)와 동절기(칠레산, 11~2월)로 구분되며, 국내산 체리 출하 시기는 5월 말에서 7월까지로 하절기 체리 수입 시기와 겹침.

〈표 27〉 미국산 체리(신선)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FTA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소비량(A)	4,275	9,809	9,724	14,016	13,281	14,640	18,370	18,628	16,862	15,329	18,561
국내 생산량(B)	252	355	588	656	698	820	709	555	1,000	1,114	1,114
(비율, B/A)	(5.9)	(3.6)	(6.0)	(4.7)	(5.3)	(5.6)	(3.9)	(3.0)	(5.9)	(7.3)	(6.0)
총수입량(C)	4,023	9,454	9,136	13,360	12,583	13,820	17,661	18,072	15,862	14,215	17,448
미국(D)	3,826	9,325	8,936	13,080	12,076	12,387	16,022	14,444	11,508	10,807	11,684
(비율, D/A)	(89.5)	(95.1)	(91.9)	(93.3)	(90.9)	(84.6)	(87.2)	(77.5)	(68.2)	(70.5)	(62.9)
(비율, D/C)	(95.1)	(98.6)	(97.8)	(97.9)	(96.0)	(89.6)	(90.7)	(79.9)	(72.6)	(76.0)	(67.0)
칠레	-	-	-	-	-	690	1,209	2,987	4,155	3,121	5,541
우즈베키스탄	17	1	46	147	36	151	161	431	114	124	206
기타	180	128	155	133	471	592	269	210	85	163	17
총수출량(E)	0.275	-	0.243	-	0.047	0.230	0.100	0.043	0.035	0.090	0.005

주 1)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산술평균값임.

2) 총소비량(A)=국내 생산량(B)+총수입량(C)-총수출량(E)

3) 체리 수입량은 신선 체리만 집계한 값임.

4)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3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기타로 집계함.

5) 2021년 체리 생산량은 통계 미발표로 2020년 생산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 3.4. 주요 수출 품목

#### 3.4.1. 배

우리나라 對미국 배 수출량은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국내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산 가격 상승,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배의 對미국 수출 증가로 감소추세를 보임.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배 수출량은 8,282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2.9% 감소함(〈표 28〉참고).

- FTA 이행 6~10년차 對미국 배 수출량은 1만 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8.2%,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11.6% 증가함.
- 우리나라의 對미국 배 수출량은 2018년 최고치(1만 2천 톤)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임. 이는 국내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산 가격 상승, 중국산 배의 對미국 수출 증가 영향임.<sup>17)</sup>
- 對미국 배 수출단가는 FTA 이행 6~10년차 평균 kg당 3.1달러 수준으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24.7%,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배 수출단가 상승은 국내산 배 도매가격이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7.4% 상승한 영향으로 보임.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표 28〉 우리나라의 對미국 배 수출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출량	9,512	8,126	10,359	8,282	9,220	10,294	-12.9	8.2	11.6
수출단가	2.5	3.2	2.8	3.7	2.9	3.1	48.1	24.7	7.0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과 6~10년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술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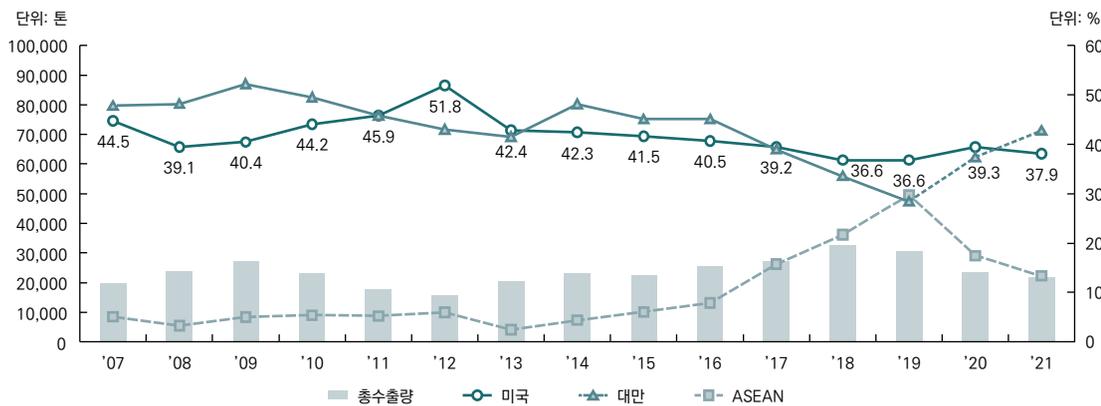
2) 배 수출량은 HS 0808.20.1000(2007~2011년), HS 0808.30.0000(2012~2021년)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우리나라 배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對미국 배 수출량 비율은 FTA 발효 직후 51.8%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7.9% 수준까지 하락함. 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對미국 수출량 비율이 하락추세를 보임.<sup>18)</sup>

〈그림 3〉 우리나라의 배 수출량 및 국가별 수출 비율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3.4.2. 김치

우리나라 對미국 김치 수출량은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위한 관심과 한류 열풍으로 K-푸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함.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김치 수출량은 7,950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012% 증가함(〈표 29〉 참고).

18) 상계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 FTA 이행 6~10년차 對미국 김치 수출량은 평균 4,528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33.5%,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232.2%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향한 관심과 한류 열풍으로 K-푸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김치 수출량이 많이 증가함.<sup>19)</sup>
-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3.6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6.6% 상승했고,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는 2.2% 하락함.

〈표 29〉 우리나라의 對미국 김치 수출 변화

단위: 톤, 달러/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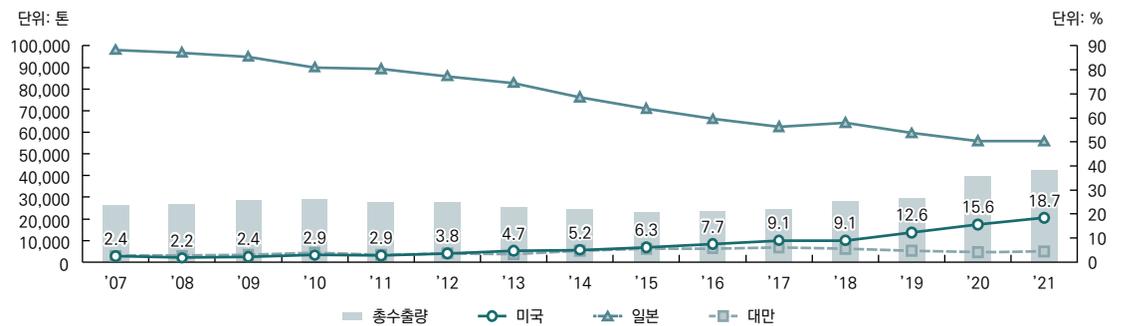
구분	FTA 발효 전 평균(A)	FTA 이행					변화율(%)		
		1년차 (2012년)	5년차 (2016년)	10년차(B) (2021년)	1~5년차 평균(C)	6~10년차 평균(D)	B/A	D/A	D/C
수출량	715	1,047	1,805	7,950	1,363	4,528	1,012	533.5	232.2
수출단가	3.4	3.7	3.5	3.6	3.7	3.6	4.2	6.6	- 2.2

주 1) FTA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1~5년차와 6~10년차 평균값은 각각 2012~2016년과 2017~2021년 산출평균값임.  
 2) 김치 수출량은 HS 2005.99.1000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함.

- 우리나라 김치 전체 수출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2.6%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13.8%로 상승함.
- 우리나라 對미국 김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량 비율이 가장 큰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수출 비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對일본 김치 수출량 비율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84.6%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53.2%로 31.4%p 하락함.

〈그림 4〉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량 및 국가별 수출 비율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1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1. 9.)

## 04

## 요약 및 시사점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는 관세 철폐율이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으며,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 (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

- TRQ 품목들의 TRQ 소진율은 평균 50%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주요 국가로의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부족 때문으로 판단됨.
-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이며, 미국산 메밀, 콩류, 팥콩과 옥수수(기타)의 경우 ASG가 4년 이상 발동됨.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對미국 수출액 모두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가 커짐.

-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對미국 수출액 모두 증가했으나, 미국산 수입액 규모가 수출액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커짐.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많이 증가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오렌지, 포도, 감자와 체리임.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에서 쇠고기, 치즈, 크랜베리와 커피는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수입량 증가율이 높고 미국산 비율도 크게 상승했지만, 체리, 레몬과 자몽의 경우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미국산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 수준이고,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48.0% 수준임. FTA 이행 1~5년차 평균 대비 FTA 이행 6~10년차의 협정관세 활용률 상승 폭은 수입의 경우 8.6%p인 반면, 수출의 경우 1.2%p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미국산 축산물은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추세를 보이지만, 對미국 배 수출량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임.**

미국산 축산물은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과실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곡물류는 일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음.

- 미국산 쇠고기와 치즈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량과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돼지고기는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EU산 수입량 회복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소폭 상승함.
- 미국산 포도와 체리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많이 증가했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칠레산 수입량 증가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오렌지의 경우는 국내 봄철 과채류 대비 경쟁력 저하로 그 영향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 수입대체로 상승했지만, 미국산 감자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EU 및 캐나다산 프렌치프라이용 감자 수입량 증가로 하락추세임.

우리나라 배와 김치의 對미국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FTA 발효 전 대비 증가추세를 보임. 다만, 배 수출량은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김치 수출량은 K-푸드를 향한 관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FTA 이행 6~10년차 우리나라 對미국 배 평균 수출량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8.2% 증가했으나, 최근 국내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산 가격 상승,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배의 對미국 수출량 증가로 감소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對미국 김치 수출량은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위한 관심과 한류 열풍으로 K-푸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급증함.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FTA 체결에 따른 주요 품목별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출하)량 증가는 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 및 상승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만감류, 딸기, 샤인머스캣과 같은 국내산 과일·과채류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기호를 맞춘 농축산물이 출하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짐. 이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구성 측면에서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품목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업체 담당자 또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관리 방법들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50% 미만을 유지하며, 농산물과 임산물의 협정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품목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들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2. 『한·미 FTA 주요내용』.
- 성석호. 2011. 『한·미 FTA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2020.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업전망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USDA. 2021. “Citrus Annual Republic of Korea.”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2. 4. 11.
-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2. 4. 8.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at.or.kr/article/apko363300/list.action>>. 검색일: 2022. 4. 8.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3. 20.
- 한·미 FTA.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https://www.fta.go.kr/us/doc/1/>>. 검색일: 2022. 4. 8.
- FTA 강국 KOREA. <<https://fta.go.kr>>. 검색일: 2022. 4. 5.
-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index.do>>. 검색일: 2022. 4. 7.

#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2 kkphil@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7호

##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6.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